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ince 200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T.02-734-3924, F.02-723-9995 civic21@kornet.net www.civilnet.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NGO 담당 기자.  
발 신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문의 : 김두수 국장 011-9962-0386, 이강준 간사 725-7104)  
제 목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1년 6월 25일(월), 총 2 쪽.

## 보 도 자 료

###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지구당 수입 중, 실질당비는 3.3%에 불과
- 지구당 조직을 이용한 실질적 사전선거운동 ; 선거전 451회의 의정보고회 개최
- 일부 지역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부추겨
- 연인원 80명이 71일 동안 329시간에 걸쳐 회계보고서 손으로 베껴
- 열람제한 폐지, 소액 당비납부와 연동해 국고보조금 지급해야

2001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6월 25일(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 서울지역 현역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 평균 수입액은 336,674,327원이었으며, 평균 당비 납부액은 75,269,583원(22.4%)이었다. 그러나 후원회 기부금이 국회의원을 거쳐 지구당의 수입으로 잡힐 때, 당비로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당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였다.([5] 참조) 특히 서울지역 지구당의 평균 당원수는 10,476명이었으나,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정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이 없는 “뿌리 없는 정당”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3. 지구당의 정치자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현역 의원들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주천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의 경우, 선거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451회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법에 금지된 사랑방좌담회를 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주천의원은 선거후 단 한차례의 의정보고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신기남의원(민주당 강서갑)의 경우도 1월부터 선거전까지 의정보고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4. 정치자금조사팀은 민주당 중구(정대철 의원)의 회계보고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지출액의 과다 계상”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새로운 보고서와 바뀌치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정 전과 후의 금액 차이가 3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미 제출했던 회계보고서를 새로운 보고서와 바뀌치기 한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월권이다. 특히 보고서 제출 날짜가 바뀌기 전과 후가 동일한 것도 문제이다.([4] 참조)

지구당 정치자금을 의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박주천(한나라당 마포을)은 정책개발비와 의정활동비에서 “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총 26,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했으나, 회계보고서 상에서는 그 지출 용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5.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역 각 지구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작업을 진행했고, 이 기간 동안 정치자금 필사작업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는 총 2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베끼는 과정에서 “선관위와의 마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42.9%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마찰이 없었다는 응답은 57.1%였다. 마찰의 이유로는 “분철”이 14.3%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이전 자료 안보여 줌” “무성의한 답변” “고답적인 자세” “인신공격” 등이 주요한 마찰요인이었다.

6.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서울지역 정치자금 분석결과를 발표한 후, “소액 당비납부와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 “3개월 열람기간 제한 폐지”,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공개”, “정치자금 감사 강화”, 현역과 원외, 그리고 무소속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은희(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장, 여성연합 상임대표),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신광식(한국CLC사무국장), 권형하(이화여대 정의과 3학년) 등이 참석하였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ivilnet.net>

※ 별첨자료(총 12쪽)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 725-7104, 019-351-3896)

#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분석 보고서

## 목 차

[1] 총론 .....	( 2 )
[2]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 - 재정자립 못하는 부실지구당 ..	( 4 )
[3] 수입과 지출의 특징	
1) 당비 내는 진성 당원 없는 뿌리 없는 정당 .....	( 5 )
2) 지구당 조직을 이용한 실질적 사전선거운동 .....	( 6 )
[4]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 사례 .....	( 7 )
[5] 실사 참가자 의견조사 결과 .....	( 8 )
◆ 요구사항 .....	( 9 )
※ 별첨 1. 서울지역 지구당 수입지출 통계 .....	( 10 )
2. 각 정당 서울 시도지부 .....	( 11 )
3. 지역 사례 .....	( 12 )

2001년 6월 25일(월)

## [1] 총론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지구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필사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필사 작업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는 총 25명이었다. ([5] 참조)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하은희)는 우리 나라 정당의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정치자금 실태 조사의 기초 자료는 각 지구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 수입지출 회계보고서”였다. 조사 대상은 각 당의 서울시도지부 및 서울지역 45개 현역의원 지구당이다.
- 선관위가 회계보고서의 복사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조사팀은 25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해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손으로 베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45개 지구당 가운데 7개 지구당의 회계보고서를 베끼지 못했다. 따라서 지구당의 정치자금 실태 분석은 38개 지구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대부분의 지구당은 작년 5월 이후의 지출내역만을 보고했고, 일부 지구당만 1월부터 4월까지의 지출내역까지 포함시켜 선관위에 보고했다. 따라서 분석결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 정치자금 조사팀은 각 당의 서울시도지부 및 서울지역 45개 현역의원 지구당을 대상으로 필사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열람기간 3개월 제한과 복사금지에 의해 38개 지구당에 대한 필사작업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열람제한과 복사금지가 사실상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 선관위가 회계보고서의 복사를 금지하고, 또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법규정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깨끗한 정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서울 시도지부 및 지구당 정치자금 조사 현황 ◆
    - ▶ 서울시지부 :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 ▶ 지구당 : 총 45개 중 38개 조사 (84.4%)
      - 한나라당 : 17개 중 13개 (76.5%)
      - 민주당 : 27개 중 24개 (88.9%)
      - 자민련 : 1개 중 1개 (100%)
-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필사 결과 분석은 크게 ① 지구당 정치자금의 실태, ② 수입과 지출의 특징, ③ 허위, 혹은 부실 회계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입과 지출의 특징, 그리고 부실 회계보고 사례는 각 항목별 가장 전형적인 지구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의 정당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 정치자금 필사 결과 분석은 회계사와 정치학자의 자문을 거쳤으며, 정치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방식과 내용이 결정되었다. 발표의 내용은 ① 지구당 정치자금의 실태, ② 수입과 지출의 특징, ③ 허위, 혹은 부실 회계보고 사례, ④ 조사분석 참가자의 소견, ⑤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대문구 을의 장재식 의원은 자민련 소속이지만, 지난 2000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서대문구 을 지구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2]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 - 재정자립 못하는 부실지구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25명의 자원활동가 및 상근 활동가로 구성된 “정치자금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 지구당의 2000년도 정치자금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 조사팀은 지난 3개월간 서울지역 지구당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규모만 작았을 뿐, 지난주 발표한 중앙당의 국고보조금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증빙”,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지구당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다. 심지어 일부 선관위는 지구당 회계보고서를 조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 정도로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체계는 허술했다.

### ○ 서울지역 지구당 평균 수입액 336,674,327원, 그러나 실질 당비는 3.3%에 그쳐

서울시 지구당의 2000년도 평균 수입은 336,674,327원이었다. 이 가운데 당비 납부액은 75,269,583원 (22.4%)이었으나, 실질 당비는 3.3%에 그쳤다. 현행 정당법 22조의2(당비)는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당, 어느 지구당도 당비 납부액을 늘려 재정자립을 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 후원회 기부금이 당비로 둔갑

현역의원 지구당은 “후원회 회계보고” “국회의원 회계보고” “지구당 회계보고” 등 3개의 회계보고서를 지역 선관위에 제출한다. 여기서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주었다가, 국회의원이 다시 지구당으로 줄 경우, 지구당 수입지출명세서에서 “당비”로 잡힌다. 따라서 3개의 회계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당원이 낸 당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 현역의원 지구당 항목별 평균 수입액>

	이월	당비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	총액
명세서상 수입	14,206,123 ( 4.2% )	75,269,583* ( 22.4% )	52,114,286 ( 15.5% )	59,869,678 ( 17.8% )	13,827,244 ( 4.1% )	121,387,415 ( 36.1% )	336,674,329 ( 100% )
실질당비로 계산할 경우	17,231,336 ( 3.6% )	15,896,810** ( 3.3% )	50,695,652 ( 10.6% )	271,502,253 ( 57% )	21,041,458 ( 4.4% )	100,078,493 ( 21% )	476,446,003 (100%)

\* 지구당 수입지출명세서 상에는 336,674,327원으로 집계되지만, 후원회 후원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지구당에 지출된 “특별당비(사실은 후원회 후원금)”를 제외할 경우 실질당비는 훨씬 떨어지게 된다.

\*\* 필사한 자료 중 “후원회회계보고”, “국회의원회계보고”, “지구당회계보고”가 온전히 필사된 23개 지구당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3.3%에 그쳤다. 당비 비중이 줄고, 후원금 비중이 늘어난 것은 후원회 기부금이 국회의원을 거쳐 지구당에 지출된 것을 후원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 [3] 수입과 지출의 특징

#### 1) 당비내는 진성 당원 없는 뿌리없는 정당

○ 서울지역 각 지구당의 평균 당원수는 10,476명(선관위가 열람거부한 지구당 제외)이다. 그러나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 한나라당 마포갑 (박명환의원)

한나라당 마포갑 지구당이 신고한 당원수는 18,167명이었으나, 지난 2000년 한해동안 당비를 납부한 진성당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년도 이월	당비*	보조금	지원금수입 기타수입	총수입
금액	20,889,105	228,600,000	58,000,000	105,852,400	413,341,505
비율	5.1%	55.3%	14%	25.6%	100%

\* 당비로 신고한 228,600,000원은 후원회기부금이 국회의원을 거쳐 지구당의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사실은 후원금이다.

##### 새천년민주당 노원갑 (함승희 의원)

새천년민주당 노원갑 지구당의 경우, 수입에서 당비는 0원이었다. 신고한 당원수는 6,672명이었으나, 지난 2000년 한해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년도 이월	당비	보조금	후원회기부금	지원금수입 기타수입	총수입
금액	777,693원	0	55,000,000원	107,949,483원	234,500,000원	398,227,176원
비율	0.2%	0%	13.8%	27.1%	58.9%	100%

## 2) 지구당 조직을 이용한 실질적 사전선거운동

- 지구당의 정치자금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현역 의원들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를 앞둔 몇 달 동안에 하루에 서너 차례씩 모두 수백 차례의 의정보고회를 연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법에 금지된 사랑방좌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인 것이다. 원외 위원장의 경우 아무래도 현역의원보다 적기는 하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사랑방좌담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 한나라당 미포을 (박주천 의원) ; 1월부터 3월까지 82일간 451회의 의정보고회 개최

총 지출 216,976,270원 가운데,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이 의정활동비(49,974,600원)였다. 의정활동비 가운데 22,550,000원을 의정보고회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1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82일간 총 451회의 의정보고회를 열었고, 일률적으로 매회 50,000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선거 직전에 하루 평균 5회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의정보고회를 451회 개최하면서 일률적으로 매번 50,000원씩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100,000원 미만은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주천 의원은 선거 후 단 한 차례의 의정보고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 새천년민주당 강서갑 (신기남 의원) ; 1월부터 3월까지 의정보고회 비용 18,000,000원 지출

총 지출 401,518,399원 가운데 의정활동비로 지출한 것이 63,321,200원이었다. 의정활동비 가운데 의정보고회에 1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 가운데 7,200,000원을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연 12건의 의정보고회에 각각 600,000원씩 지출했고, 또 10,800,000원을 여성부장들과의 의정보고회 명목으로 전연자 외 11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자체영수증을 첨부하였다. 여성부장들과의 의정보고회는 기간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몇 차례 의정보고회를 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출 액수를 볼 때 의정보고회를 상당히 많이 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기남 의원은 선거 이후에는 10월 7일 “본동 의정보고회”를 단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 [4]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 사례

##### 지구당 정치자금용 의원 개인 용도로 사용

○ 한나라당 마포을 (박주천 의원)

한나라당 마포구 을 지구당은 정책개발비(14,808,000원) 중 10,000,000원을 10월 24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000원씩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박주천 의원에게 지급했다. 이 정책개발비는 그 지출 용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의정활동비(49,974,600원) 중 16,000,000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매 월 2,000,000원씩 지급하였다. 회계보고서만으로는 박주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 선관위가 허위 회계보고 부추겨

○ 서울시 중구 선관위 - 민주당 중구 지구당 (정대철 의원)

정치자금조사팀이 지난 3월 6일 회계보고서 열람 중에 “영수증 지출액의 과다 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뒤 조사팀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중구 선관위는 보여준 회계보고서는 이를 전에 열람했던 회계보고서가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구당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소명 요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과다 계상 부분을 고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제출했던 회계보고서를 새로운 보고서와 바꿔치기한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월권이다. 특히 회계보고서 제출 날짜가 바뀌기 전과 후가 동일한 것도 문제이다.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지출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29,573,6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수정 전·후 지출내역 비교표>

		수정 전 (3월 6일)	수정 후 (3월 8일)
기본경비	인건비	74,600,000	74,600,000
	비품및소모품비	13,524,180	13,524,180
	사무소유지비	44,903,800	44,903,800
	공공요금	33,866,400	33,866,400
	소계	166,894,380	166,894,380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20,600,000	20,600,000
	당원교육훈련비	2,057,000	2,057,000
	조직활동비	125,063,830	125,063,830
	선전비	120,367,840	111,964,240
	선거비	41,000,000	41,000,000
	의정활동비	0	0
	기타경비	235,341,045	213,246,045
소계	544,429,715	514,856,115	
합 계		711,324,095	681,750,495

※ 가로안의 3월 6일과 8일은 조사팀이 열람한 일자

## [5] 실사 참가자 의견조사 결과

- 서울지역 정치자금 필사 작업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필사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과정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한 사람은 총 25명이었다.

### 연인원 80명이 71일동안 329시간에 걸쳐 회계보고서 베껴

- 서울지역 지구당의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베끼는 작업에, 71일 동안 연인원 80명이 참가하였는데 걸린 시간은 총 329시간이었다. 1개 지구당의 회계보고서를 베끼는 데, 평균 21명이 2일 동안 8.7시간이 걸렸다.
-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베끼는 과정에서 “선관위와의 마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42.9%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마찰이 없었다는 응답은 57.1%였다. 마찰의 이유로는 “분철”이 14.3%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이전 자료 안보여 줌” “무성의한 답변” “고답적인 자세” “인신공격” 등이 주요한 마찰요인이었다.  
(분철 ; 여러 명이 함께 필사작업을 할 경우, 효과적인 필사를 위해 신고된 회계보고서의 분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마찰이 많았다는 의미)
- 필사 과정에서 느낀 정치자금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38.1%가 “열람제한 및 복사금지”를 꼽았고, 다음으로 “불투명한 회계보고”, “처벌규정 약화” 등을 꼽았다.

## ◆◆ 요구 사항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지역 지구당 정치자금 실사를 통해 확인된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소액 당비납부와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구당의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현실을 극복해, 안정적인 재정자립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을 일정액 이하의 소액 당비 납부실태와 연동해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즉 각 정당이 당비납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어 정당의 건전한 재정자립을 꾀해야 한다.

### 3개월 열람제한 조항 철폐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하고, 복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공개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회계보고서의 복사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도 개정 의견을 낸 만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열람기간 제한 및 복사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 현역과 원외의 차별 철폐

조사결과 확인되었듯이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악용해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원외 후보자 특히 무소속 후보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거나, 혹은 후보등록일 전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내와 원외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공개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 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된 수입액만을 놓고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검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입금액과 함께 그 내역까지 신고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정치자금 감사 강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을 위반 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각종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 위법 사항에 따른 보조금 삭감 조치 등 엄정한 법적응을 해야 할 것이다.

※ 별첨 1. 서울지역 지구당 수입지출 통계

후원회 기부금과 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67.6% ; 당비는 단 3.3%

○ 서울지역 현역의원 지구당의 2000년 한해 동안의 평균 수입액은 336,674,329원이었고, 이중 “당비 75,269,583(22.4%), 후원회 기부금 59,869,678원(17.8%), 보고금 52,114,286원(15.5%), 그외 이월금, 차입금, 기타수입이 44.4%”로 나타났다.

○ 그러나 후원회 기부금이 국회의원을 거쳐 지구당의 수입으로 잡힐 경우, 지구당 수입지출명세서 상에서는 “당비”로 처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 당비는 훨씬 떨어진다. 실제로 후원회, 국회의원, 지구당 등 세 개의 회계보고서가 완벽하게 필사된 23개 지구당의 평균수입(476,446,003원)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3.3%(15,896,810원)에 불과했다. 반면 후원회 기부금은 전체수입의 57%(271,502,253원)에 이르렀다.

<서울지역 현역의원 지구당 항목별 평균 수입액>

	이월	당비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	총액
명세서상 수입	14,206,123 ( 4.2% )	75,269,583* ( 22.4% )	52,114,286 ( 15.5% )	59,869,678 ( 17.8% )	13,827,244 ( 4.1% )	121,387,415 ( 36.1% )	336,674,329 ( 100% )
실질당비로 계산할 경우	17,231,336 ( 3.6% )	15,896,810** ( 3.3% )	50,695,652 ( 10.6% )	271,502,253 ( 57% )	21,041,458 ( 4.4% )	100,078,493 ( 21% )	476,446,003 (100%)

\* 지구당 수입지출명세서 상에는 336,674,327원으로 집계되지만, 후원회 후원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지구당에 지출된 “특별당비(사실은 후원회 후원금)”를 제외할 경우 실질당비는 훨씬 떨어지게 된다.

\*\* 필사한 자료 중 “후원회회계보고”, “국회의원회계보고”, “지구당회계보고”가 온전히 필사된 23개 지구당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3.3%에 그쳤다. 당비 비중이 줄고, 후원금 비중이 늘어난 것은 후원회 기부금이 국회의원을 거쳐 지구당에 지출된 것을 후원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지구당의 지출은 선거비(23.1%), 사무소설치운영비(13.8%), 인건비(13.3%) 순

○ 서울지역 현역의원 지구당이 작년 한해동안 지출한 평균금액은 293,846,789원으로 나타났고, 선거비(23.1%), 사무소설치운영비(13.8%), 인건비(13.3%), 조직활동비(10%)순으로 지출이 많았으며, 그 외 의정활동비 등으로 39.8%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현역의원 지구당 항목별 평균 지출액>

기 본 경 비				정 치 활 동 비							
인건비	사무용품	사무소	공공요금	정책개발	당원교육	조직활동	선전비	선거비	의정활동	기타경비	총액
39,158,425 (13.3%)	12,114,039 (4.1%)	40,391,278 (13.8%)	10,263,780 (3.5%)	11,867,322 (4%)	4,840,300 (1.7%)	29,379,774 (10%)	14,943,258 (5.1%)	67,737,210 (23.1%)	19,150,075 (6.5%)	44,001,328 (15%)	293,846,789 (100%)

## ※ 별첨 2. 각 정당 서울 시도지부

수입의 50%가 기부금과 보조금 ; 한나라당·자민련 서울시지부 당비 0원

각 정당의 서울시도지부의 정치자금 수입을 보면, 수입의 대부분을 후원회 기부금(42.9%)과 보조금(6.9%)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 서울시지부는 당비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56.3%가 인건비 등 기본경비 ; 정책개발비 8.3%에 불과

지출의 경우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의 56.3%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체 지출중 기본경비가 65.1%에 이르렀다. 단일 항목으로는 인건비(30.2%), 사무소설치운영비(18%), 조직활동비(17.9%)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서울 시도지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

구분	과목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평균
수입	전년이월	2,274,350 1.3%	8,697,992 2.7%	1,724,446 4%	4,232,263 2.3%
	당비	0 0	79,560,000 24.5%	0 0	26,520,000 14.6%
	기탁금	0 0	0 0	0 0	0 0
	보조금	13,000,000 7.4%	9,000,000 2.8%	15,400,000 35.8%	12,466,667 6.9%
	후원회 기부금	133,249,394 75.5%	100,000,000 30.9%	0 0	77,749,798 42.9%
	차입금	0 0	4,000,000 1.2%	0 0	1,333,333 0.7%
	기관지발행수입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27,988,050 15.6%	132,935,505 41%	25,916,800 60.2%	62,280,118 34.4%
	합계	176,511,794 100%	324,193,497 100%	43,041,246 100%	181,248,846 100%
지출	인건비	21,658,722 15.3%	124,950,000 41.1%	0 0	48,869,574 30.2%
	사무용품소모품	10,664,358 7.7%	8,917,640 2.9%	1,465,080 3.4%	7,015,693 4.3%
	사무소설치운영	22,892,512 16.4%	55,030,348 18.1%	9,557,884 22.3%	29,160,248 18%
	공공요금	5,916,970 4.3%	8,762,130 2.9%	3,489,420 8.2%	6,056,173 3.7%
	소계	61,132,562 43.9%	197,660,118 65.1%	14,512,384 33.9%	91,101,688 56.3%
	정책개발비	13,862,790 10%	21,934,908 7.2%	4,423,500 10.3%	13,407,066 8.3%
	당원교육훈련비	0 0	0 0	0 0	0 0
	조직활동비	11,260,000 8.1%	51,680,421 17%	23,837,200 55.7%	28,925,874 17.9%
	선전비	3,788,000 2.7%	0 0	0 0	1,262,667 0.8%
	선거비	0 0	0 0	0 0	0 0
출동비	의정활동비	0 0	0 0	0 0	0 0
	기타경비	49,195,900 35.3%	32,437,340 10.7%	0 0	27,211,080 16.8%
	소계	78,106,690 56.1%	106,052,669 34.9%	28,260,700 66.1%	70,806,686 43.7%
	합계	139,239,252 100%	303,712,787 100%	42,773,084 100%	161,908,374 100%
	잔액	37,272,542	20,480,710	268,162	19,340,471

### ※ 별첨 3. 지역 사례

충남 (아산민주노동당(준) 이진숙 011-423-3914)

○ 자민련 아산 지구당 (원철희 의원)

원철희 “국회의원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지출 내역 중 기타경비로 당비를 1,588만원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증빙서류에는 5,400만원의 당비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또한 지구당 회계보고서를 보면, 당비수입으로 1,588만원을 신고하였다. 즉 38,115,049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 입장>

자민련 아산지구당의 정치자금을 필사했던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준)의 요구로 선관위는 원철희 의원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조사팀이 소명내용을 필사한 결과 전혀 지적사항과 상관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아산 선관위는 지난 6월 19일 “단순 사무착오”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 왔다.

충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양준석간사 043-267-0151)

○ 자민련 제천단양 지구당 (송광호 의원)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의 기타경비 중 30,000,000원을 송광호 의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원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으며, 언제 차입을 했는지도 기록에 없다.

또한 지구당 회계보고 지출내역을 보고하면서 명세서의 지출날짜와 영수증상의 날짜가 틀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영수증이 없는데도 영수증이 있는 것처럼 비교란에 첨부서류 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나 업체명이 틀린 영수증을 수 차례에 걸쳐 첨부하는 등 회계보고서를 도저히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선관위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열람을 하게 하였다.

○ 자민련 진천괴산음성 지구당 (정우택 의원)

지구당 지출내역의 조직활동비 중 판공비 명목으로 11, 12월에 개인에게 1,000,000만원, 500,000원씩 3회 지급(총3인에게)된 것은 판공비가 상근자 급여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지 의심이 간다. 또한 속도위반 벌금을 공공요금으로 처리(총4건)한 것과 조향세트(3,000,000), 앨범대금(3,500,000) 등을 지불하면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였다.

전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국장 063-232-7119)

○ 민주당 고창지구당 (정균환 의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비교해 보니, 지난해 8월 1000여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중복 지출되었다. 지출 금액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중복계상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사팀은 이를 선관위에 지적했고, 선관위는 소명자료를 받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충북은 실사결과를 이미 발표하였고, 전남, 광주전남, 전북,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은 이후 각 지역별로 지구당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